
2014년 ~ 2018년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중장기 재무관리계획

2014. 6.

K O T R A

I. 기관 현황

□ 설립 목적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)

-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,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,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계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

□ 주요 사업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)

-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
 - * 바이어찾기, 무역사절단, 전시회, 현지법인설립, 지적재산권 보호 등
- 해외시장정보 생산, 전파 및 컨설팅
 - * 해외 마케팅 및 투자진출 컨설팅, 해외시장정보 수집·설명회 개최 등
- 외국인 투자유치
 - *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전개, 既진출 외투기업 고충처리 등
- 국내전문인력의 해외 취업·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연수 등

□ 조직 및 정원

- (조직) 본사 : 5본부 24실(센터) 7단
 해외 : 9지역본부 122개 무역관(84개국)
- (정원) 임원 7명, 직원 715명으로 총 722명('14.6월 기준)

□ 예산

			(백만원)		
구 분	'13	'14	구분	'13	'14
▪ 수입	292,959	305,201	▪ 지출	292,959	305,201
- 국고보조금	248,600	256,589	- 인건비	95,648	98,977
- 자체수입	44,359	48,612	- 경상경비	6,896	6,960
			- 조직망운영	62,092	63,492
			- 사업비	128,323	135,772

Ⅱ.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

1. 경영환경 분석 및 경영목표

가. 경영환경 분석

□ (경제환경) 수출·투자 지원의 질적 고도화 전략으로 전환

- (세계) 주요 선진국은 금융완화 지속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나,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모멘텀 둔화 정도 등 불안성 지속

* 세계경제성장률 전망(EIU) : 2.0%('13)→2.7%('14)→2.8%('15)→2.8%('16)

- (국내) 대외 여건의 점진적 개선으로 수출과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, 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, 엔저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는 부진 요인

* 연평균 GDP 성장률(EIU) : 2.8%('13)→3.4%('14)→3.9%('15)→4.1%('16)

□ (정부정책) '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' 정교화, 세밀화, 모델화를 통한 전략 수립

- 성장희망 사다리 제공을 통한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
- 맞춤형 개방·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 강조
- 효율성·책임성·투명성의 3대 원칙에 기반한 공공기관 합리화 추진

□ (고객동향) '고객맞춤형, 고객 수요 중심'의 서비스 체계화

- 미수출기업, 수출초보기업 중심의 글로벌화 역량제고 필요
- 고객수요의 다양화, 복잡화로 성장단계별 맞춤형서비스 수요증가
- 고객의 참여 욕구 확대, 단순 소비자 →생산·소비자(Prosumer)로 진화

□ (트렌드) 일자리, 글로벌 CSR 등 KOTRA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요구 적극 부응

- 양적성장→민생중심 무역, 단순교육→무역투자 융복합, 일방향 무역→글로벌 상생무역, 제조업→창조형 성장동력산업으로 패러다임 진화

□ (내부역량) 고객, 현장 중심의 경영시스템 고도화, 조직문화 내재화 필요

- 정부, 산업진흥 예산 감소, 해외무역관 확대, 고객수요 복잡화 등 전문성 요구

나. 경영목표

□ (전략방향 I)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무역·투자 사업 강화

- (기업) 초보·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복합 지원
- (국가) 국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
- (세계) 무역·투자 융복합 사업을 통한 공동 번영에 기여
 - ▶ 저성과사업 구조조정, 신기능·신수종 유망 사업 추진, 중소기업 글로벌 성장 사다리 제공, 지방중소기업 수출활성화, 해외투자진출·프로젝트 발굴/수주 지원, FTA체결 효과 활용 중소기업 수출확대, 현지 시장 세분화/차별화 전략

□ (전략방향 II) 고객·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전환

- (협업) 협업 플랫폼 역할 강화
- (개방) 전략적 개방을 통한 글로벌시장 창출 지원
- (맞춤형)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
 - ▶ KOTRA 플랫폼역량 고도화,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선도수행, 정보·공간·기능·서비스 개방, 고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고도화, 사용자 중심 포털 구축, 고객분석·관리·피드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

□ (전략방향 III) 창의형 경영관리 시스템 구현

- (조직·인사) 역량과 효율 중심의 신인사·조직 운영
- (성과·보상) 성과관리, 보상체계의 합리성 강화
- (재무·예산) 리스트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무역량 확충
- (IT시스템) 시스템 기반의 조직역량 제고
 - ▶ 역량중심의 신인사제도, 네트워크형·현장형 조직운영, 성과측정·관리의 합리성 제고, 성과·보상간 합리적 연계성 강화, 재무안정성 및 신기능 확대에 대비한 재무역량강화, 환리스크 관리, 핵심무형자산의 정립 및 관리

□ (전략방향 IV)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

- (회사) 핵심가치 기반의 조직문화 내재화
- (직원)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
- (가정)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활성화
 - ▶ 핵심가치 기반의 조직문화 내재화, 윤리·투명 경영시스템 고도화, 상생·미래지향의 노사협력, 조직문화 T/F 운영, 노사의 소통·신뢰, 존중·배려, 창의·신바람 상생협력, 유연근무, 가족친화 경영, 여성인재 육성 제도개선 등

2. 사업계획

□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

- 글로벌 역량진단(GCL Test)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평가하여 성장단계별 수출전략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
 - (수출첫걸음) 내수·수출초보기업과 수출 전문위원을 '수출 멘토·멘티'로 연결, 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 및 네고에서 수출계약까지 쏠단계를 밀착 지원
 - * 581개사('13) → 700개사 ('14)
 - (유망·중소기업) 다양한 글로벌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출 역량 강화
 - * 해외시장조사, 지사화사업, 무역사절단, 해외전시회, 수출상담회, 글로벌 브랜드사업 등
 - (강소·중견기업) 융복합의 맞춤형 밀착 서비스 제공
 - * 글로벌파트너링, 일류상품·월드챔프, 글로벌전문기업 사업
- 온라인 포털(BuyKorea.org) 운영, 글로벌 B2B e-마켓플레이스 제공
 - * BuyKorea.org(글로벌 B2B e-마켓플레이스, 내수기업 온라인 상품전시관 신규 구축, 8월), KOPS(온라인결재시스템) 운영, 해외 구매오퍼 제공
- 직접 찾아가는 수출현장 애로 해소
 - 정부의 수출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지원단 설치, 이동코트라 연계 상담 확대
 - *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합, 수출애로상담센터(Trade Doctor) 확대

□ 창의형 신산업의 수출산업화, 신시장 개척 통한 새로운 수출기회 확대

- 창조경제형 융·복합 산업 지원으로 새로운 시장개척
 - (ICT 융복합) 한국형 시스템통합(SI), 모바일 연관 분야 등 수출 확대
 - (지식서비스) 수출유망 8개 분야와 한류콘텐츠의 융복합화로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
 - * 8대 분야 지식서비스 선도기업 선정 : 게임, 애니메이션, 캐릭터, 방송, 이러닝, 프랜차이즈, 디자인, 스마트콘텐츠 등 8개 분야
 - (의료·병원) 웰빙,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의료기기·서비스, 병원 수출
 - (녹색·에너지) 에너지 절감,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출 확대
- 신흥·전략시장 진출 지원 강화
 - (신흥시장)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중인 신흥시장별 특화사업 전개
 - * 글로벌컨슈머마켓플라자(아시아), G2G 거래확대(중남미),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, CSR 및 개발협력사업(중동아프리카)
 - (전략시장) 재건·복구 등의 특수 활용 마케팅 집중 전개
 - * 7개국(리비아, 쿠바, 미얀마, 이라크, 콜롬비아, 인니, 터키, '13)→8개국(이란 추가, '14)

□ 현장형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수집·전파

-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출직결형 현장정보 제공 확대
 - 고객 수요가 높은 해외기업(바이어), 상품산업, 구매오퍼 정보 생산 확대
 - * 해외기업정보 신규 개방 : ('14) 20만건
 - * 상품산업정보 DB 신규 제공 : ('14) 3,200건
 - * 바이어오퍼 확대 : ('13) 12,299건 → ('14) 14,000건
 - * 국가정보 확대 : ('13) 92개국 → ('14) 96개국

○ 해외 비즈니스 통합 포털 구축으로 고객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

- 공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Single Window 구축
 - * 국가·품목코드 입력을 통한 정보 일괄 검색 및 통합보고서 제작 가능
- 맞춤형 이메일, 고객 수요반응형 정보제공 등 맞춤형 기능 강화
 - * 국제무역센터(ITC) Trade Map을 탑재, 상품별 수출유망대상국 파악 지원
- 인증·표준 등 비관세장벽 통상정보 수집 강화
 - * 기업 고객 진출 애로 해소 위한 수출유망품목 인증제도 조사 및 DB 구축 등

□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진출 지원

○ 고객 수요 기반의 프로젝트 발굴·개발 및 수주지원 체계 운영

- 「프로젝트 수주협의회」, 「전담무역관제」 운영을 통한 수요 발굴

○ 해외유력 발주처 초청, ‘글로벌 전시상담회·포럼’ 개최

- 발굴된 프로젝트는 OPS(해외 프로젝트수주 프리미엄 서비스) 등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수주 마케팅 심층 지원
 - *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 (5월, 서울), 글로벌 에너지 플라자 (5월, 서울)

○ 유관 기관과 협업 지원을 통한 수주 가능성 제고

- * 해외 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무보(정책금융), KOICA (ODA), 수은(EDCF)과 협업 지원 강화

○ 해외투자진출 기업의 진출 → 정착·확대 → 복귀·이전 쏠단계 지원

-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투자상담, 정보 제공

- * 투자상담: 5,700건('13) → 7,000 건('14), 투자진출 설명회/박람회 개최
- *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IP-Desk 확대: 7개 ('13) → 9개 ('14)

- 해외투자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(U턴) 및 안정적 철수 지원

- * (본사)지원센터 + (해외) 6개 무역관 연계

□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확대

- (고용 창출)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우량 투자 프로젝트 유치 집중
 - 대형 제조, 지역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대
 - 고용유발 효과가 큰 고부가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활동 강화
- (지역균형 발전) 지역 산업클러스터, 지자체와 연계한 비수도권 투자유치 활동 전개
 - 지자체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, 지자체 해외투자유치단 확대
 - * 45회 ('13) → 50회 ('14)
 - 해외유명 전시회 지자체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신규 추진
 - * 오사카 전기설비공업전 등 5개 도시 6개 전시회에 경북, 광주, 인천 홍보관 운영 ('14)
- (산업구조 고도화) 산업 파급·수입대체 효과가 큰 고도기술 산업 투자유치
 - BT (의료·바이오), GT (신재생에너지·2차전지·LED 등) IT 산업 중심
 - 글로벌기업 R&D센터 유치 통한 기술 이전 지원

□ 해외취업·창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유도

- 양질의 해외구인기업 발굴, 청년 취업 지원 등 생태계 조성
 - K-Move 센터 구축*, 해외취업 거점무역관(10개), 해외 취업창업지원 카페 운영을 통해 채용 수요 상시 발굴 체제 구축
 - * 해외 권역별 해외 취업창업지원 플랫폼(K-Move센터): 3개 ('13) → 5개 ('14)
 - 수요 기반 채용행사 개최를 통한 글로벌 취업·창업 기회 제공
 - * 글로벌 취업창업 대전(1월), 해외 글로벌기업 취업 대전 (5월)
 - 해외 현지 채용수요에 기반한 취업연계형 글로벌마케팅 인턴 파견
 - * 중소기업 채용 수요가 높은 산업분야의 기술인력 및 지역전문가 양성
- 청년 해외창업 지원
 - (선진국) MS, Amazon 등과 협력, 청년 벤처기업의 현지 창업 및 성장 지원
 - (신흥국) 적정 기술 활용 현지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상생협력플라자 운영

Ⅲ. 현 재무상태 진단

- ◇ (종합) KOTRA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받으며, 편성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어 금융기관 차입금은 전무, 자본잠식 위험은 거의 없음
- ◇ (자산·부채) 자산은 '13년 1,740억원으로 전년대비 183억원 증가, 부채는 '13년 664억원으로 전년대비 81억원 증가
 - * 자산(억원): ('11) 1,503 → ('12) 1,557 → ('13) 1,740
 - * 부채(억원): ('11) 517 → ('12) 583 → ('13) 664
- ◇ (당기순이익) '13년 134억원으로 전년대비 35억원 증가
 - * 당기순이익(억원): ('11) 399 → ('12) 99 → ('13) 134

□ (종합)

- KOTRA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국고로 지원받고,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
-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, 외국인투자유치, 해외투자진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특성상 외부차입 또는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, 국고지원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
- 실제 부채비율('13년 61.7%)이 안정적이며, 부채내용도 기타

유동부채 혹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금융기관차입은 전무
☐ (자산·부채) '13년 자산 및 부채는 전년대비 증가

○ (자산) 지분법 평가에 따른 지분법투자주식 증가(75억)를 포함하여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183억 증가

* 지분법투자주식 : ('12) 299억 → ('13) 374억

○ (부채)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로 부채총액이 증가하였으나, 충당성 부채를 제외한 기타부채는 감소

- 차입금 등 금융성 부채는 전무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성과급 등 충당성 부채가 전체 부채의 상당부분('13년 57.1%)을 차지, 기타부채는 사업운영에 따른 선수수익,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

* 충당성부채/부채(억원,%) : ('12) 363 / 583(62.3%)→('13) 379 / 664(57.1%)

< 부채현황 ('13년말 기준) 및 관리방안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	금 액	발생 원인 관리 방안
부 채	유동부채	미지급금	158	사업비 반납액
		선수금	102	사업비 선금
		상여금충당금	158	차년 성과금(IFRS규정)
		기타	14	각종 사업 매출부가세 등
	비유동부채	퇴직급여충당금	220	퇴직급여
		기타	12	임대보증금 등
	계		664	
자 본		1,076	부채비율 : 61.7%	

○ (부채비율) 전년대비 소폭 상승

* 부채비율 : ('12) 59.9% → ('13) 61.7%

☐ (당기순이익) 영업이익관리 노력으로 '13년 영업이익은 19억, 당기순이익은 134억원 실현

- * 당기순이익 : ('12) 99억 → ('13) 134억
- (이자보상배율) 차입금 등 금융성 부채는 전무하며, '12년 금융리스부채 상환완료에 따라 리스이자비용 또한 전무
- * 이자보상배율 : ('12) 1,493배 → ('13) -

IV. '14~'18년 재무관리계획

1.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평가 · 분석

□ '13년 계획 대비 실적

(억원, %, 배)

구분	'13년		차이(B-A)
	계획(A)	실적(B)	
자산	1,650	1,740	90
부채	628	664	36
부채비율	61.44%	61.71%	0.27%
순이익	10	19	9

* 부채비율 산정시 IFRS 반영

□ 평가 및 분석

- (종합) '13년도 자산·부채는 연말 지분법평가이익,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한 퇴직급여충당부채 평가 등으로 의해 소폭 변경되었으며, 매출·영업이익은 정부의 정책적 불용 및 자체수입 변경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
- (자산 및 부채) '13년 자산 1,740억원, 부채 664억원
 - '13년도 자산은 지분법 평가에 따른 투자주식 증가(75억)로 인하여 자산 규모는 재무전망 대비 90억 증가
 - '13년도 부채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1억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됨에 따라 재무전망

대비 36억원 증가, 부채비율은 예상과 비슷한 수준

- (매출 및 영업이익) '13년 매출액 3,266억원, 영업이익 19억원
 - 국고보조금 정책적 불용 및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매출액은 전망 대비 소폭(55억원) 감소하였으며 조직망예산 절감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망보다 소폭(9억원) 증가

2. 재무관리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

- ◇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부응한 부채감축 노력
- ◇ 환차보전적립금 적립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(매년 10억원 내외)
- ◇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강화('17년 1,000억원)

□ 경영효율화를 통한 부채절감

-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및 예산 운영 효율화,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, 인건비 절감,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 경영효율화 추진

□ 환리스크 관리

- 공사의 부채는 미지급금, 사업참가비 선수금 등 수익인식 기준에 의한 이연계정, 퇴직급여 충당금 등 부채성 충당금으로 구성되어, 금융부채가 전무하며 재무적으로 안전한 구조
- 그러나, 해외조직망 운영, 해외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정기적으로 원화에서 외화로 환산하여 지출함에 따라 거래 환위험(편성시점과 지출시점의 환율차이에 의한 환위험)에

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필요 재원의 확보가 필요

- 이를 위하여 '08년부터 환차보전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 관리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, 이익잉여금 처분시 법정적립금 적립 후 10억원 내외를 임의적립금인 환차보전적립금으로 적립할 계획

□ 지속적 자본 확충

-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자본금규모를 확대하여 국가 IPA로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에 대응
 - '12년 납입자본금 500억원으로 증액 완료
 - * 자본금 규모변화(억원) : ('09)160 → ('11)320 → ('12)500
 - '17년까지 법정자본금 1,000억원으로 증액 추진
 - * 공사법 개정 등 추진 필요

3. 재무관리방안

가. 자구노력

□ 원가절감을 통한 부채절감 노력

- 공사는 차입금 등 금융부채가 없어 부채감축 직접 소요는 없으나, 정부의 정상화 정책에 호응하고, 방만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 인건비, 경상경비, 복리후생비 등을 절감

구 분	실행방안
인건비 절감	사장, 감사 기본연봉 반납, 상임이사 임금하향, 1직급 연봉 동결 비상임이사 출석수당 삭감(20%)
경상경비 절감	업무추진비(10%)삭감, 자본예산, 복리후생비 절감

□ 환위험관리

- 공사는 **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** 관리를 위하여 '08년부터 환차보전적립금을 적립 ('09 국회 산업위 결산시 환차보전적립금 설치, 증액 권고)
- '11년 환차보전적립금 한도액을 203억으로 설정, '12년말 누계액은 123억이며, 순차적으로 80억원을 적립할 계획

☞ 적립한도액 산출내역

* 산식: '08~09년 환차평균(169.50원/불) x 2011년 외화예산 편성금액(120백만불)

-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 정정수준 관리하여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및 매년 10억원 내외 적립예정
- 환위험관리시스템('13년 구축)을 통해 연초 환위험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위험한도와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
□ 유동비율 관리

- 공사의 사업관련 부채를 적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**유동비율을 150%**로 설정하여 관리
- 유동자산 중 일부를 해외조직원 운영을 위한 보증금(무형자산)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반기업 유동비율 요구수준인 200%와 정부 요구수준인 100%사이의 150% 목표 설정

구 분	실행방안	'14	'15	'16	'17	'18
환리스크 관리	환차보전적립금 적립(억원)*	102	122	142	162	182
단기지급능력 확보	유동비율 관리(%)**	150	150	150	150	150

* '13년 IFRS의 적용으로 '14년 21억 감소 후 20억 이상 증액 적립

** KBP 등 대규모 자본예산 투자 시 예외적으로 100~150% 수준으로 유지

4. '14~'18년 재무전망

— < 전망의 전제 > —

- ◇ 매출액 : 정부보조금 및 자체수입 확대노력을 통하여 증가세 시현
 ◇ 자산·부채 : 사업규모 증가(매출액)에 따라 증가세 시현

< '14~'18년 재무 전망 >

(단위: 억원)

구분	'14	'15	'16	'17	'18
자산	1,844	1,939	2,033	2,129	2,225
부채	701	730	758	785	811
금융부채	-	-	-	-	-
- 공사채 등	-	-	-	-	-
비금융부채	701	730	758	785	811
부채비율(%)	61.3	60.4	59.4	58.4	57.3
매출액	3,397	3,522	3,653	3,788	3,929
영업이익	10	11	11	11	12

* 공사채는 CP, 전자단기사채 포함

□ (자산 및 부채) '18년 자산 2,225억원, 부채 811억원

- 지속적인 자체수입 발생 및 지분법 평가에 따른 투자주식 증가로 인하여 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
- 차입금 등 금융성 부채는 전무하며, 사업규모(매출액)의 증가에 따라 관련 부채(미지급금, 선수수익) 증가, 퇴직 급여충당부채는 일정 규모 유지 전망
 - 부채비율은 '13년 61.7%에서 '18년 57.3%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

□ (매출 및 영업이익) '18년 매출액 3,929억원, 영업이익 12억원

-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확대노력에 따라 매출액은 증가세 시현

* 매출액(억원) : ('14)3,397 → ('18)3,929

- 자체수입 확대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(국고보조금의 0.5~1%수준)

* 영업이익(억원) : ('14)10 → ('18)12

5. 13년 계획 대비 14년 계획의 주요 변동 사항

- (종합) 중장기 재무계획 지표 변화율 설정시 과거 실적의 평균 상승률(성장률)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으며, '13년 자산, 부채, 매출액 등 주요 지표 변동에 따른 '14년 계획 변경

- (자산) '14년 1,844억원에서 연간 8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'18년말 2,225억원으로 증가

* '13~'17년 증가율 : 6% → '14~'18년 증가율 : 5%

< 자산('13~'17 vs '14~'18) 비교 >

구 분(%)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'13~'17(A)	1,650	1,748	1,849	1,952	2,057	-
'14~'18(B)	(61.7)	1,844	1,939	2,033	2,129	2,225
차이(B-A)	-	96	90	81	72	2,225

* '13년 ()는 결산 부채비율

- (부채) 차입금 등 금융부채는 없으며, 유동부채는 매출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미지급금이며, 비유동부채 증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기인

* '13~'17년 증가율 : 2% → '14~'18년 증가율 : 4%

< 부채('13~'17 vs '14~'18) 비교 >

구 분(%)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'13~'17(A)	628	637	648	661	674	-
'14~'18(B)	(61.7)	701	730	758	785	811
차이(B-A)	-	64	82	97	111	811

* '13년 ()는 결산 부채비율

- (매출액) 5개년 연평균 약 3.8% 상승하는 추세이며, 매출액 중 일반국고보조금 이외의 수익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 재정 자립도는 '14년 24%에서 '18년 26%로 상승

< 매출액('13~'17 vs '14~'18) 비교 >

구 분(%)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'13~'17(A)	3,321	3,331	3,342	3,352	3,363	-
'14~'18(B)	(61.7)	3,397	3,522	3,653	3,788	3,929
차이(B-A)	-	66	180	301	425	3,929

* '13년 ()는 결산 부채비율